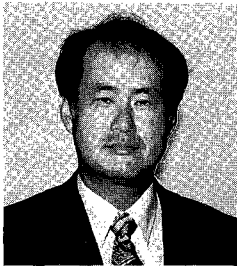


## 발로 뛰어 현장감 더하는 잡지로 발전해야..



김 정 인  
신촌사료(주) 부사장

월간양계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돌이켜보면 30년전의 한국양계업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이었고 그때 창간되었던 월간양계는 이를 오늘날의 건장한 청년으로 키워준 꾀줄이었고 요람이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초창기 편집에 참여했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후 대부분의 세월을 월간양계 편집위원으로서 함께 하였던 것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창기의 월간양계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공급에 주력하여 한국 양계산업의 발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산학협동의 가교로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과 정보를 양계인에게 넘겨주는데에도 또한 큰 공로를 세웠다. 이 기능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몇가지 희망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오는 뉴밀레니엄시대에는 더욱더 격렬한 무역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는 주로 내수산업이기도 한 한국양계산업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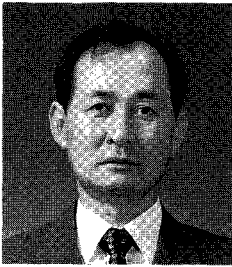
수입축산물과의 피나는 경쟁을 피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국 정부의 자국농업보호책도 더욱더 기술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월간양계는 정책건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협회의 기능이 아울러 강화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더욱더 발로 뛰어 살아있고 현장감 있는 잡지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책상위에서만 작성되거나 청탁원고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잡지를 현대의 독자들은 쉽게 알게 된다. 참고로 30년전의 월간양계 편집자와 기자의 숫자는 30년후인 오늘도 별로 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것이 성력화, 자동화 되고 있는 현대라 해도 현장을 뛰는 기자의 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셋째로 양계산업의 사회공헌도와 중요성을 계속 알려야 하겠다. 회원 및 양계인께는 계속 청정한 계란이나 신선한 닭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아울러 이를 사회에 계속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모든 외국인에게서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양계산업을 간접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애국심으로만 자국민들께 국산품을 계속 애용하여 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아직도 IMF의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건혀지지 않았고 최근 폭락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은 우리들을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아주 어려웠던 지난 일년간을 뒤로하고 밝은 새천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계인들 모두 힘을 합하여 양계 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예산없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월간양계를

기대할 수 없고 더구나 앞으로의 정부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한 번 월간양계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바이다. **양계**

##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



이 광 식  
평택양계조합 대표

어려운 환경속에서 반세기에 가깝도록 양계 발전에 초석이 되어온 월간 양계가 창간 3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하여 양계인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그동안 국내양계산업의 경쟁력 배양 및 양계농가의 대변인으로 노력해오신 월간양계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계업계가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우리 양계업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우리 양계업계는 잉여산물로 인해 사료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

난가, 각종질병, 일부 상인들의 계란수입 등의 요인으로 IMF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양계농가들이 실의에 빠지고 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1990년도에는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쟁력제고사업은 많은 양계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소비가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 시설과잉은 잉여생산의 원인이 되어 난가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어려운 양계농가의 살림을 생각할 때 충격적이어서 슬기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양계농가들이 들었던 막대한 자금이나 정성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양계업계는 붕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증가율이 생산량에 도달하는 시점이된 몇 년간은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여야 하고, 적정난가를 위해서는 잉여산물의 과감한 처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수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자를 보더라도 잉여산물에 대하여 수출이 가능하다면, 많은 양계인들이 바라는 적정난가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